

6월 선정도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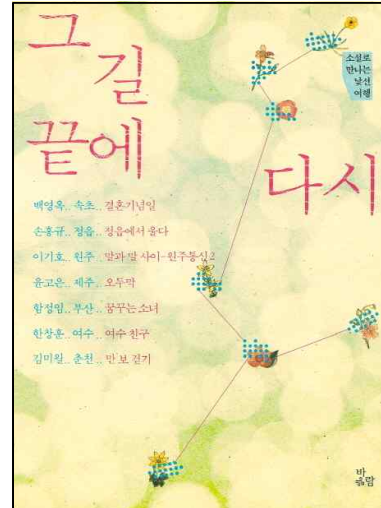
〈2014년 6월의 읽을 만한 책〉

분야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발행일	추천자
문학 예술	그 길 끝에 다시	함정임 외	바람	2014.04.21	정이현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이일수	시공사 (시공사아트)	2014.04.30	이현우
인문학	속중, 강화를 품다	이경수	역사공간	2014.04.10	김문식
	불교의 모든 것	곽철환	행성비 (행성:B&A새)	2014.05.06	이진남
사회 과학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찰스 몽고메리/ 윤태경	미디어월	2014.04.28	왕상한
	기업의 시대	OCTV 다큐 제작팀/ 허유영	다산북스	2014.04.25	전형구
자연 과학	곤충의 빨간 옷	정부희	상상의숲	2014.05.05	이한음
실용 일반	독이 되는 동화책 악이 되는 동화책	한복희	을유문화사	2014.04.25	이하경
유아 아동	사과의 길	김철순 시, 구은선 그림	문학동네	2014.04.30	김대경
	우리 아기 코 잘 때 엄마는	노경실 글, 박정완 그림	뜨인돌출판 (뜨인돌어린이)	2014.05.09	이상희

문학예술 분야

그 길 끝에 다시 함정임 외/바람

2014.4.21.발행/256쪽/12,800원



일곱명의 소설가들이 모여 일곱 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이 책은 그 각각의 도시를 주제로 쓴 작가들의 단편소설을 묶어 낸 작품집이다. 함정임, 한창훈, 이기호, 손흥규, 백영옥, 김미월, 윤고은 등 현재 한국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선택한 도시들의 면면은 부산, 여수, 원주, 정읍, 속초, 춘천, 제주 등이다. 우리에게 몹시 익숙한 지명들이다. 일곱 편의 소설 속에서 도시는 때론 인물의 욕망을 매개하는 주요한 모티프로, 때론 스쳐가는 배경으로, 때론 끝내 떠나지 못한 고향으로 등장한다. 일곱 명의 작가들이 새롭게 들려주는 그 도시들은 우리가 알던 그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정말 그 곳이 맞을까 의문이 들만큼 낯설기도 하다.

예를 들어 소설가 이기호의 <말과 말 사이-원주통신2>에서 원주라는 도시는 작가의 고향이자 친구들과의 우정 어린 추억이 가득한 곳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렇게 진술한다. ‘우리는 원주라는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 원주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냥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을 뿐이었다. 그건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마음에 쏙 들어 어울렸다가 보단 그냥 어느날 옆에 보니 그들이 있었고(후략)’ 누군가에게는 큰 뜻 때문이 아니라 어물거리다가 주저앉아 버린 것이 고향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고향 ‘원주’는 윗세대들에게 마냥 그림고 소중한 원체험의 본령으로 남아있는 고향과는 명백히 다르다.

손흥규의 <정읍에서 울다>에 등장하는 정읍은 따스하고 정겨운 전형적인 ‘고향’의 이미지가 아니라 빈껍데기만 남은 채 쓸쓸하게 살아가는 노부부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백영옥의 <결혼기념일>에서 ‘나’가 결혼식을 올린 도시 속초는 낭만의 기표가 아니라 이혼한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허망한 이름이다. ‘나’는 그곳에서 필연적으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익숙한 이 도시에서 자주 그렇듯이.

- 추천자 : 정이현(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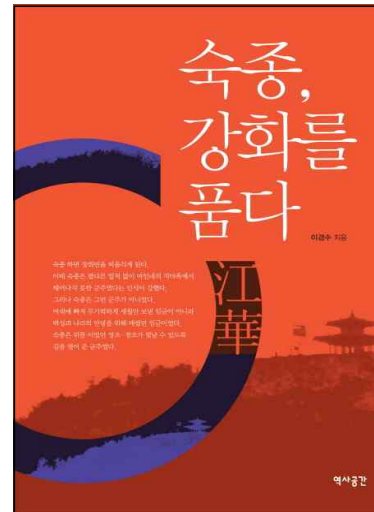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이일수/시공사(시공아트)
2014.4.30.발행/368쪽/17,000원

조선시대의 문화·예술은 정말 고리타분할까? 이 책의 저자 이일수가 던지는 물음이다. 분야를 조금 좁혀서 조선시대 미술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떠오른 건 몇 명의 대표적 화가와 함께 정말로 조금은 고리타분할 것 같은 그림들이다. 흥미가 제대로 발동해서 이 그림들을 정밀하게 관찰해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말 그대로 ‘옛그림’인 것이다.

저자는 한번 흥미를 갖고서 이 옛그림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제안한다. 그러면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사람이 살고 있네’라는 발견이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세련되게 풀어가는 과정이 조선 그림 한 점 한 점에 담겨 있다”는 것이 저자의 기본 발상이므로 ‘옛그림’을 ‘오늘의 그림’으로 소환해온다고 할까. 임금과 왕족에서, 사대부와 몰락한 선비, 그리고 서얼과 기생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람들의 생생한 일상이 그림과 함께 펼쳐진다.

기본적으로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 그림의 의미에 대한 풀이를 충실하게 들려주면서도 저자는 자연스럽게 옛그림의 안팎을 넘나든다. 그림을 그린 이의 생각과 그림에 그려진 인물들의 일상을 재구성하고, 더불어 우리의 일상과 대조해본다. 저자가 큐레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흡사 미술관에서 도슨트의 친절한 안내를 받는 듯하다. 저자의 구분대로 ‘머리로 보는 그림’은 머리로 보고 ‘가슴으로 보는 그림’은 가슴으로 봐야 한다는 시범을 제시한다. 그림의 세부까지도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의미를 살피는 저자의 숨씨 덕분에 그림 속 여인의 이마와 목덜미의 솜털까지도 눈여겨보게 된 독자라면 우리의 옛그림이 더 이상 고리타분하지 않게 다가올 것이다.

- 추천자 : 이현우(인터넷 서평꾼)



속중, 강화를 품다
이경수/역사공간
2014.4.10.발행/270쪽/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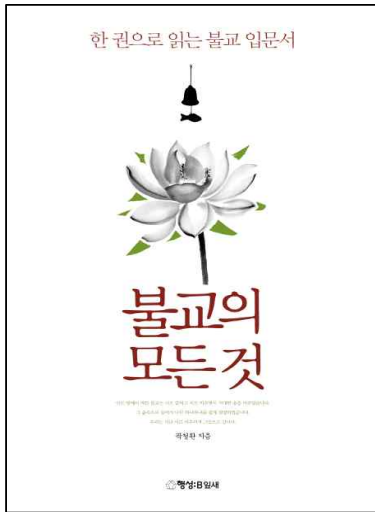
강화도는 전쟁과 인연이 많은 섬이다. 몽골군이 침략하자 고려 정부는 이곳에서 수십 년을 버텼고, 정묘호란 때 인조는 강화도에 피신하여 강화 협상을 진행했다.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인조는 미처 강화도로 들어가지 못했다. 파죽지세로 내려온 후금군이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막았기 때문이다. 속중은 국가 비상시에 강화도로 정부를 옮겨 전쟁을 수행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이 책은 강화도를 국토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거점으로 만들었던 속중의 행적을 정리했다. 속중은 병자호란 때 불타버린 강화 행궁을 다시 세웠고, 강화도의 외곽을 방어하는 외성과 읍내를 방어하는 내성을 수축했다. 외성에서는 해안에 위치한 19개 돈대를 연결하고 흙으로 된 성벽을 돌이나 벽돌로 바꾸었으며, 내성에서는 남산과 건자산, 북산을 연결시켰다. 행궁과 내성의 건축에는 강화유수 민진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는 속중의 계비인 인현왕후의 오빠였다.

속중은 강화도에 진무영을 창설하고 강화유수가 진무사를 겸하게 하여 독립적 지휘체계를 가진 방어단위를 구축했다. 또한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12개 진보와 52개 돈대를 설치했다. 돈대는 해안에 위치한 소규모 관측 및 방어시설로 모든 돈대에는 서양식 화포인 불랑기가 설치되었다. 강화도와 마주보는 문수산에는 문수산성이 건설되었다. 강화도의 인구와 병사가 늘어나자 속중은 대동법을 실시하고 대규모 간척 사업을 벌여 식량과 군량미를 늘렸다.

속중은 강화 행궁에 장녕전을 짓고 자신의 어진과 수레를 보관하게 했다. 이는 속중이 그곳에 계신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군비 강화의 구심점이 되었다. 지금의 강화도가 있는 것은 속중 덕분이라는 것이 강화도가 고향인 필자의 주장이다.

- 추천자 : 김문식(단국대 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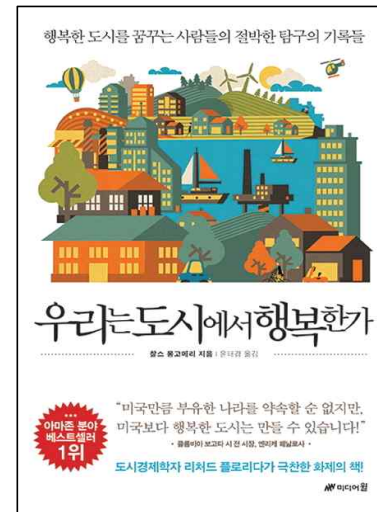
불교의 모든 것
곽철환/형성비(형성:8월세)
2014.5.6.발행/520쪽/22,000원

서양문화를 구성하는 두 기둥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듯이, 한국인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세 요소는 유교, 도교, 불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학문, 예술, 문화, 생활 등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도 불교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찰에 들어갈 때 차례로 거치는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은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웅전과 극락전, 명부전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칠성각과 산신각은 왜 절에 있는지 궁금해도 그냥 지나쳐버리곤 했을 것이다. 개신교의 예배나 가톨릭의 미사에 해당하는 불교의 예불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보살, 화엄, 중관과 같은 말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책은 이러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준다. 우선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여 불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는 과정, 특히 대승불교와 선의 역사와 가르침을 설명한다. 고·집·멸·도, 12연기, 5온, 3독 등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래되면서 대승불교가 되고 선종과 교종의 각종 유파를 낳는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불교의 종교의식과 사찰의 구석구석을 설명한다. 예불 뿐 아니라 불공, 49재, 방생회와 같은 불교의식을 비롯해서 사찰의 각종 건물, 탑, 석등, 범종, 목탁 등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궁금했던 불교의 기초 용어들에 대해 Q&A의 형태로 해설하고 중요한 경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염주의 용도는 무엇이고, '만(卍)'자와 108번뇌에서 108의 의미, 우리나라의 다양한 종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하고 있다. 이 책은 불교에 대한 입문서이자 사전이다. 따라서 불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전반적인 관심이 있다면 처음부터 죽 읽으면 된다. 혹은 구체적인 사항들에만 관심이 있다면 책 뒤의 찾아보기에서 해당 단어를 찾아 참고하면 될 것이다.

- 추천자 : 이진남(숙명여대 교양교육원 교수)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찰스 몽고메리/온태경/미디어얼
2014.4.28.발행/536쪽/18,000원

도시에 사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도시와 사람,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책으로 출판됐다. 저자인 찰스 몽고메리는 도시와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이 꿈꾸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심리학적, 사회학적, 인문학적으로 풀어낸다. 세계 곳곳의 행복한 도시의 사례를 들어 진정한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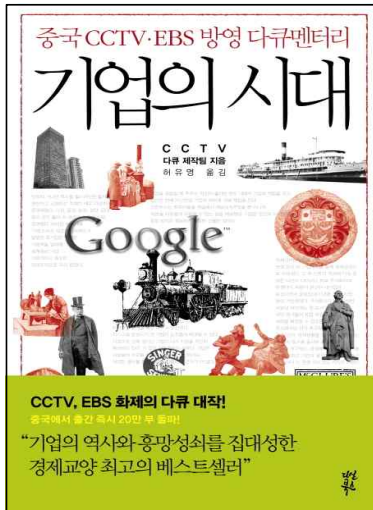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도시의 모습은 쾌적한 기후, 고학력, 고소득의 이웃이 모여 살

거나 집 주변의 풍경이 아름답고 세련된 모습을 생각하지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진정 행복한 도시의 모습을 살펴본 저자가 내린 결론은 이런 요소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단적인 예로 대표적인 범죄 도시였던 콜롬비아의 보고타. 수십 년간 계속된 내전 속에 보고타에는 매년 8만 명의 난민이 몰려들었다. 대중교통 시설도 변변치 않은 데다 갖가지 이동수단이 내뿜는 매연으로 공기는 숨이 막힐 듯 했다. 1995년 한 해에만 발생한 살인범죄는 3363건. 그러나 이 도시의 시장으로 취임한 페날로사는 범죄근절도, 마약이나 빈곤과의 전쟁도 아닌, 바로 자동차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시의 예산을 자전거 도로, 공원, 보행광장, 도서관, 학교, 보육시설 건설에 투입했다. 유류세를 인상하고 자동차 통근을 주 3회 이하로 제한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는 말뚝을 설치해 자동차의 유입을 막았다. 그 결과 오늘날 행복한 도시로 사랑받고 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새들이 날아다녀야 하듯 사람은 걸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자연과 접촉해야 한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행복한 도시는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도시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행복 도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작은 생각과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 왕상한(서강대 법학부 교수)



기업의 시대
CCTV 다큐 제작팀/허유영/다산북스
 2014.4.25.발행/476쪽/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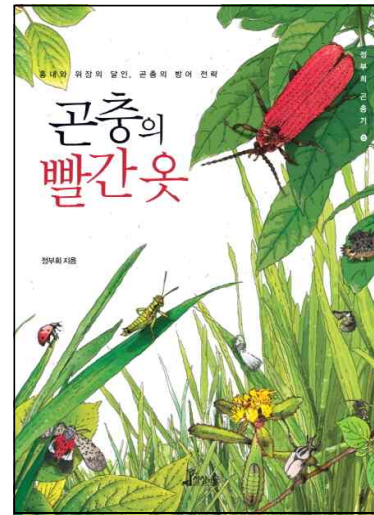
이 책은 중국 CCTV 다큐 제작팀이 기업의 탄생과 발전의 역사를 조망한 10부작 다큐멘터리를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기업의 진화와 발전, 쇠퇴와 번영의 순간들을 되짚어보는 대기록물로 세계 역사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진화해왔고 또 어떻게 세상을 바꿔왔는지 정리하고 있다.

기업은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낯선 존재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효율성이 높은 경제 조직이며 ‘인류가 얻어낸 최고의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오늘날 유형과 무형의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들이 기업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졌다. 또한 기업이 구축해 놓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지역에 진입해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업은 인류 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기업은 자본과 노동력, 아이디어를 결합시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혁신의 주역으로, 때로는 탐욕의 화신으로 영욕의 역사를 창조해 왔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성장과 침체 사이에서 부침을 되풀이 해오고 있다.

기업을 흥망성쇠를 살펴보다보면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전세계인들로 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은 착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예견해 볼 수 있다. 자연친화적이며,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업,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 등이 착한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들이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회자되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힘》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는 점도 흥미롭지만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의 인터뷰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는 물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기업가들에게도 흥미를 더할 수 있을 한 권의 책이 될 것이다.

- 추천자 : 전형구(독서경영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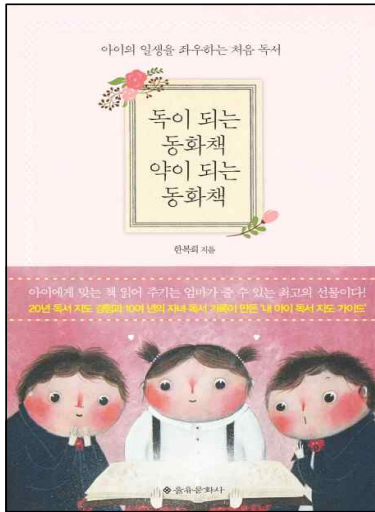
곤충의 빨간 옷
정부희/상상의술
 2014.5.5.발행/352쪽/38,000원

무심코 지나가다가 나뭇잎 위에 선명한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고, 온몸에 가시가 촘촘히 박힌 커다란 애벌레가 보이는 순간, 우리는 저도 모르게 움찔한다. 전혀 해롭지 않은 나방 애벌레임을 알면서도 저절로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 또 나뭇잎에 달라붙은 새똥처럼 징그러워서 차마 건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을 한 종류도 있다.

곤충의 이런 다양한 모습은 사실 그들의 방어 전략이다. 나방 애벌레 뿐 아니라, 많은 곤충들은 저마다 놀라운 방어 전략을 보여준다. 상대에게 겁을 주어 멈칫하게 만드는 곤충도 있는 반면, 대벌레처럼 눈에 안 띄게 위장하는 곤충도 있다. 또 위험하거나 독을 지닌 말벌이나 사마귀, 무당벌레와 비슷한 모습을 띠므로써, 포식자를 속이는 종류도 있다. 자신의 똥을 등에 붙이거나 아예 새똥 같은 모습을 함으로써, 입맛을 떨어뜨리는 곤충도 있다. 물론 독나방이나 무당벌레처럼 진짜로 몸에 지닌 독을 써서 포식자를 물리치는 종류도 있다.

이 책은 그런 곤충들의 다양한 방어 전략을 멋진 사진을 곁들여서 흥미롭게 설명한다. 개미를 닮은 개미벌과 그 개미벌을 닮은 참개미붙이처럼 우리가 잘 모르던 곤충도 있고, 풀잠자리와 섬서구메뚜기처럼 흔히 보면서도 잘 모르던 곤충도 등장한다. 쑥쑥 들어오는 재미있는 설명과 더불어 각 곤충의 특징이 잘 드러난 선명한 사진들을 보고 있자면, 아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흰 얼룩이 섞인 새똥 같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뱀눈 같은 눈알무늬가 선명한 통통한 초록색 애벌레로 변신하는 호랑나비 애벌레는 보면 볼수록 빠져들게 된다. 이 책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바로 우리 땅에서 볼 수 있는 곤충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쉽고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에, 책에서 본 뒤 공원에서 또는 산에서 해당 곤충을 직접 관찰하는 기쁨을 누구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추천자 : 이한음(과학 전문 저술 및 번역가)



독이 되는 동화책 약이 되는 동화책
한복희/울유문화사
2014.4.25.발행/384쪽/15,000원

고등학교 시절 철학자인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이 학교로 강연을 왔다. 김 교수님은 “10대에 읽은 고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었다. 구체적인 대목은 기억이 나지 않아도 춘원 이광수, 헤르만 헤세, 도스토옙스키, 루소의 이야기는 아직도 나의 의식 혹은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는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 동화책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보니 맞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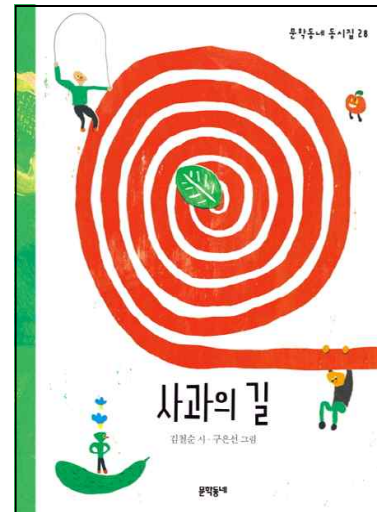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시절의 독서가 더 중요했다는 생각이 든다. 글자를 처음 배우고 나서부터 우리세대는 스토리에 목말라했다. 필자는 초등학교 입학 후에야 글자를 배웠는데, 정말 읽을 책이 없었다. 그래서 새학기 교과서를 받으면 바로 다 읽어치웠던 기억이 난다. 어쩌다 동화책 한권을 만나면 함부로 읽기가 아까워서 처음에는 조금씩 아껴서 읽었고, 마침내는 내용을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읽고 또 읽었다. 읽을 게 없으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었고, 서로에게 들려주었다. 서사에 대한 결핍과 열광은 가난한 시절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인 우리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다.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스토리가 지천에 깔려있다. 책도 책이지만 TV와 스마트폰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콘텐츠가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저자는 스토리의 홍수 속에서 방향할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최선의 길을 안내하고 싶어 하는 엄마를 위한 책을 만들었다.

엄마들은 책의 도처에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가령 인도의 힌두 민간요법에서 옛 이야기를 활용했다는 대목을 보자.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저 옛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기 괴로움의 본질과 해결 방법이 머리에 떠오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독서의 마술이다.

연령대 별로 꼭 읽어야 할 책의 목록도 꼼꼼히 정리돼 있다. 두 아이가 장성해버린 지금, 아내와 나는 부끄러운 부모였다는 후회와 자책이 든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라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 추천자 : 이하경(중앙일보 논설주간)



사과의 길
김철순 시, 구은선 그림/문학동네
2014.4.15.발행/124쪽/9,500원

최근에는 책을 직접 사서 즐겨 읽는 사람이 적을 뿐더러 시집이나 동시집을 일부러 찾아 읽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강조되는 시험과 입시에서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다양한 교과 지식과 게임 속 캐릭터의 이미지만이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시가 일깨워주는 모국어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운 상상이 주는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온 지 무척이나 오래된 요즘, 어쩌면 김철순 시인의 이 시집이 답답하고 묵직한 마음과 머리에 상쾌한 청량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시인은 세밀한 관찰과 섬세한 감각으로 사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연과 세상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사과나무 동네에서 나무와 꽃과 풀벌레들과 속닥속닥 이야기 나누면서 살아가는 시인이 들려주는 노래를 귀 기울여 듣고 있노라면 절로 웃음이 스며 나오고 잊었던 따뜻한 감성이 되살아난다. “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하는 감탄사와 함께 뒤늦은 후회감이 밀려온다. 뻑뻑한 일상과 메마른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짧지만 깨달음과 성찰의 시간을 던져주는 동시들이 많다.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된다. 어린 딸과 매일매일 아껴가며 소리 내어 한두 편씩 읽고 싶다.

- 추천자 : 김대경(서울 성수고 교사)

우리아기코잘때엄마는



우리 아기 코 잘 때 엄마는
노경실 글, 박정완 그림/뜨인돌어린이
2014.5.9.발행/36쪽/12,000원

온종일 ‘아기에 의한’, ‘아기를 위한’, ‘아기의’ 삶을 살게 되는 세상 모든 엄마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야말로 그림책이다. 하염없이 되풀이되는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의 고달픔을 다정하게 위로하는 그림책과 조근조근 아기에게 말 걸고 노래 불러주게 하는 그림책, 자기 같은 엄마가 등장해 자기처럼 순정한 마음으로 아기를

보살피는 그림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기를 위한 그림책’은 무엇보다 ‘아기 엄마를 위한 그림책’이 된다.

꾸밈없는 일상어로 이루어진 소박한 자장 노래말과 동판에 아로새기고 부식시켜 찍어낸 그림이 고즈넉이 어울리는 그림책 『우리 아기 코 잘 때 엄마는』이 펼쳐 보이는 세계는 고전적이다. 아기를 낳아 돌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리하여 매사 조심스럽고 신비로운 새내기 엄마의 순정한 모습이 차근차근 이어진다. 아기가 잠든 사이 고무장갑을 끼고 기저귀며 턱받이를 조물조물 주물러 빠는 모습, 아기가 깰세라 조용조용 딸랑이며 뽁뽁이며 형끓 강아지 놀잇감을 정리하는 모습, 차 한 잔 옆에 놓고 아기 사진을 붙여가며 가슴에 차오르는 기쁨을 농칠세라 날날이 적는 모습, 아기에게 읽어줄 그림책을 고르고 골라서 펼쳐 놓은 채 깜박 조는 모습, 자다 깬 아기를 업고 온 정성을 다해 이유식을 만드는 모습, 탈 없이 잘 자라게 해주십사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 아기 덕분에 엄마며 아빠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회를 이룬 가족의 잠든 모습…… 어느 장면 하나도 쉬이 넘길 수 없이 마음을 붙든다. 한 생명이 일으키는 감격의 시간을 거듭 들여다보면서, 문득 뜨겁고도 격한 마음이 되기도 한다. 하필 수많은 어린 생명을 놓쳐버린 절규와 비탄의 와중에 출간된 이 자장가 그림책이야말로 우리에게 이제 다시 더욱 공들여야 할 첫 일을 가리켜준다고.

- 추천자 : 이상희(그림책 작가, 시인)